

## 박인로, '누항사'

우활(迂闊)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깃뽀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셔 흙 밥 닛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석일 썬이로다.  
생애(生涯) 이러 하다 장부(丈夫) 썬을 움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 하다.  
그 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 하며,  
주머니 뷘것거든 병(瓶)이라 담겨시라.  
빈곤(貧困) 혼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썬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 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년가.  
분의 망신(奮義忘身) 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 于囊)의 줌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 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로(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년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瓏上耕翁)을 천(賤)타 하니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 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놓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칸 덕혀두고,  
쇼 혼 적 듀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셔

기참 아합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너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헝기 구차(苟且)헝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헝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헝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쑤어 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헝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넝고.  
 내일(來日)로 주마 헝고 큰 언약(言約) 헝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헝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헝면 혈마 어이 흘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쑤이로다.  
 와실(蝸室)애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 )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추창(終朝惆悵)헝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논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온 저 소뉘는 벗보님도 뉘홀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헝 꿈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헝야 어지버 이져셔다.  
 첨피기육(瞻彼淇澳)혼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헝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깃픈 곳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헝며 말라 헝라.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논,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넉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인간(人間) 어넉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헉건마논  
넉 생애(生涯) 이러호되 설은 쫓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헉 쫓이 온포(溫飽)애논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헉리 닐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되로 살렸노라.

## 박인로, '선상탄'

을사(乙巳) 삼하(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느러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찌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진목(勵氣瞋目) 햐야 대마도(對馬島)을 구버보니  
벼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선상에 배회(徘徊) 햐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 햐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애 헌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 햐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빅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너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슴 일 햐려 햐야 빅 못기를 비롯햐고  
만세천추(萬世千秋)애 ㅁ업순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애 만민원(萬民怨) 길우낙다

어즈버 썩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햐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빅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 햐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애 다 밧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높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션고  
늪딴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 햐 줄 모르로다

어즈버 생각햐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 햐다  
인신(人臣)이 되야셔 망명(亡命)도 햐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긔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 곳흔 어부생애(漁父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긔 부쳐 든힐논고

일언 닐 보건된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흔 덧하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늑는 듯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로 빗기 타고,  
임풍영월(臨風口永月)호긔 흥(興)이 전혀 업논게오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鋌) 쑤이로다.  
흔 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기간(期間) 우락(憂樂)이 서로 곳지 못호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늑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호야 해추(海醜) 흥모(兇謀)애 만고  
수(萬古羞)를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흔 가지도 못 시셔 브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되읍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긔 각(刻)애 이즐넉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하다마는  
묘고마는 이 몸이 病中(병중)애 드러시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호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업손 손빈(孫臏)도 방언(龐涓)을 잡아거든,  
흐물며 이몸은 수족(手足)이 그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흠소냐?  
비선(飛船)에 둘러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들 못 흘 것가

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곁항(乞降) 해야스라.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탁 섬멸(殲滅) 하라  
오왕성덕(吾王成德)이 욕병생(欲竝生) 하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요순(堯舜) 군민(君民)되야 이셔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復朝) 하얏거든,  
전선(戰船) 득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 하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 이셔,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 송순, '면앙정가'

무등산(無等山) 흐 활기 뉘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쉼쳐 와 제월봉(霽月峯)의 되여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의 모습 짐작 흐노라  
일곱 구벽 흠뻑 움쳐 무득무득 버러는 듯.  
가온대 구벽는 굵기 든 늘근 농이  
선증을 곳 쉼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송죽(松竹)을 해혀고  
정자(亭子)를 언쳐시니 구름 툰 청학(靑鶴)이  
천리(千里)를 가리라 두 노래 버러는 듯.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이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넙쳐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 마나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 펴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빅얏바  
돋는 듯 썩로는 듯 밤늦즈로 흐르는 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는뇨.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릭  
두르고 썩즌 거슨 뉘힌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뉘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온뉘 일흠는 양하야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錦城山)이 허공(虛空)에 버러거든  
원근(遠近) 창애(蒼崖)의 머은 것도 하도 할샤.  
흰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長空)의 썬나거니 광야(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디트락  
사양(斜陽)과 섯거디어 세우(細雨)조차 썬리는다.  
남녀(藍輿)를 빅야 타고  
술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흥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겨워 흥는고야.  
나모 새 즈즈지어 녹음(綠陰)이 얼틴 적의  
백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야 곳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쏘 엇디 만경(萬頃)에 퍼겨 디오.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를 썬라 브닌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빅몰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흥야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움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흥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흥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썬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흠소냐.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흥랴.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흥 뉘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썬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흥리야.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되여 가노믹라.  
술이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닉며 툃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ㅎ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넓고 일월(日月)도 혼가ㅎ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던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浩蕩) 정회(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총답사, '안민가'

군(君)은 어버이여,

신(臣)은 사랑하실 어머니여,

민(民)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민(民)이 사랑받음을 알 덧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들을 먹여 다스리어

이 땅을 버리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 안이 다스려질 것을 알 덧입니다.

아으, 군(君)답게 신(臣)답게 민(民)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군 태평(太平)할 덧입니다.